



보도 일시	정상회담 및 서명식 종료시까지 엠바고	배포 일시	2022. 11. 23.(수) 17:30
담당 부서	개발금융국 개발사업과	책임자	과 장 곽소희 (044-215-8740)
		담당자	사무관 윤영준 (yoonyj95@korea.kr)

한-케냐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기본약정 체결

- 아프리카 신흥국 케냐와의 인프라 협력 본격화 -

□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주구나 은등우(Njuguna Ndung'u) 케냐 재무장관은 11.23.(수) 서울에서 개최된 한-케냐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-케냐 정부 간 2022~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(이하 EDCF*) 기본약정**에 서명하였다.

* EDCF(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): 개도국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진하기 위해 '87년 도입된 정부기금

** EDCF 기본약정: 차관 지원 기간 및 한도액을 사전에 설정하는 정부 간 협정으로 동 약정 기간·한도 내 승인된 사업들에 대한 건별 약정을 포괄적으로 대체

○ 동 기본약정 체결에 따라 케냐 정부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은 2022~2026년 기간중 미화 10억 달러로 증액되었다.

* 기존 한-케냐 EDCF 기본약정 한도: 2018~2020년 기간중 미화 3억 달러

□ 케냐는 동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거점국가이며, 양호한 정부 거버넌스와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*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신흥 개도국으로

* 기업환경평가(세계은행, 2020년):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(인구 백만 명 이상) 내 2위

○ 개발수요가 풍부하고 우리 기업 진출 관심이 높아, 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을 계기로 향후 에너지, 디지털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이 기대된다.

- 최근 우리 정부는 EDCF 협력을, 기존 아시아 국가 위주에서 다변화하여 아프리카 등 제3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,
 -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, 올해 8월 개최된 EDCF 운용위원회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제2의 베트남, 인도네시아와 같은 차세대 개도국 경험 파트너를 발굴·육성해 나간다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.
- 우리 정부는 이번 한-케냐 EDCF 기본약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가속화되고 가까운 미래에 한-케냐 경제협력이 아시아 주요 개도국 못지않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,
 - 케냐 외에도 경험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, 중남미 등 비(非)아시아 신흥 개도국들과의 EDCF 협력을 지속 확대·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